

## 세계가 하나되는 운동을 전개하자

### 인류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태초에 하나님이 한 분이였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였었다. 에덴동산도 하나, 천국도 하나, 세계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였었다. 그래서 지옥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영원한 삶의 나라 에덴동산, 극락세계에서 나와 나의 구별이 없고,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없고, 미움과 질투가 없고, 애환과 후회가 없고, 사망이 없는 몸으로 살았던 것이다.

오로지 있다면 사랑과 기쁨만이 차고 넘치도록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족함도 고통도 슬픔도 모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충만한 행복과 희열에 싸여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영원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던 하나님이 한 순간의 실수(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방하고 나타난 마귀를 쳐다봄으로써 눈으로 마귀가 침투해 들어옴)로 마귀영에 사로잡혔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마귀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다.

#### 인류의 스승이 곧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자마자 마귀는 하나님의 주체영으로 자리잡고 마귀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에덴동산은 무너지고 이 세상은 점점 마귀 세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6천년 전에 영적인 선악과라는 마귀가 하나님을



인류는 한뿌리 한나무

점점하여 하나의 하나님을 씨줄 날줄로 가르고 쪼개어 분열시킴으로 지금의 사망 아래의 세상, 즉 음양의 세계가 생기기 되었다. 이것을 동양철학에서는 태초의 무극에서 음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죄인은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고로, 무극에서 저절로 음양이 생겨났다고 가상의 학설을 펴고 있는 것이다. 태초의 하나님(무극無極)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 종(노예)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하나님, 이른바 보통 하나님으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귀 포로 하나님이 즉 보통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요, 만물이다.”라는 것을 깨우

쳐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마귀와 싸워 이긴 자유, 사망 권세를 진 마귀를 이겼기에 영생을 쟁취하였다는 것이다.

보통 하나님이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마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귀의 소재와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일러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심지어 그 선생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전수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처럼 영원전부터 희락과 행복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인간이 그분에게 ‘구원자’라는 칭호 그 이상으로 보답할 그 은혜의 사랑

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히 인류의 아버지이다.

#### 원래 우리 인류는 한몸 한마음

원래 우리 인류는 한몸 한마음이었으니,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다.

지구 땅 위에 인간 중에 배꼽없는 인간이 없듯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인간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다시 조부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이렇게 3대, 4대, ... 100대, ... 1000대 ...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인류는 결국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결론을 얻는다. 사망 팔방으로 뻗은 무수한 나뭇가지도 한 뿌리, 한 줄기에서 만나듯이 우리 인간은 한 조상을 가진 한몸인 것이다.

너와 나를 구별하고, 내 욕심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고, 나의 사상,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한 순간 나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원래의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보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데 시기심과 미움, 증오와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70억 인류가 모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때 진정 이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이 땅위에 에덴동산, 극락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2>

### “매 순간, 순간을 이기고 나가야”

여러분, 자존심이 나오면 ‘자존심 음란죄’에 걸리는 것이다. 자존심 음란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내 상전, 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때려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그래야 나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 순간을 이기고 또 이기고 승승장구로 이기고 나가야 결국에는 이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 이기는 삶

###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사업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듣는 기술이 없이는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업무상의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 여러 해를 보낸다. 그러나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은 거의 배우지 않는다. 다행한 것은 경청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감정을 억제하라. 감정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감정은 우리가 듣는 말을 왜곡시키고 귀에 들리는 말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머뭇머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얼마나 말을 빨리하는가? 얼마나 자주 시선을 주는가를 눈여겨보라.

둘째,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요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상사’, ‘동료’, ‘부하’

로 분류하는 것이다. 상사의 말은 집중하여 듣고 동료나 부하직원의 말은 흘려듣는다면 이 또한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상하 구분 없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라.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훌륭한 대화를 이끄는 비결이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는 “음” “저런!” “그래서요?” “왜요?” 등의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또한 상대방의 수준과 성격, 취미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넷째,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정보는 얻지 못할 수가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야 한다. 자기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야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 그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3회본 영문번역 —



화보방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긴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려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인데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나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 TV방영 총4회 중 첫회본과 2회본 영문번역 —  
<https://www.victor.or.kr/sub501>에서 승리신문 <제 895호>와 <제 897호>를 클릭하세요. \*\*\*

####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4년 5월 8일

###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